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지난 주간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생활공동체 영성수련을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기도와 격려, 그리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 성서일기 진도가 어제 14일(토)부터 요한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어제 요한복음 1:1-18)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읽도록 권고하는 책입니다. 문장이 쉽고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교훈과 삶을 해석하는 복음서로서 내용이 깊고 웅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방공동체에서는 성서일기의 첫 번째 과정이고, 성경공부에서 첫 대상으로 삼는 책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동 · 전경희 집사 가정 (감사)
 이어진 전도사 (감사)
 이어람 집사 (감사)
 이어직 집사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3 호

2023년 1월 15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미디어를 유용하고 이롭게 활용합시다

우리는 매일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소식을 알기도 하고 알리기도 하죠. 이전엔 신문과 TV, 극장과 라디오 등 많은 도구들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컴퓨터와 노트북을 넘어 스마트폰과 패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소통에서 점점 다양한 방법들로 더욱 쉽게 참여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아쉬움과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이런 미디어를 잘 활용하기 위해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혹시 더 좋은 프로그램과 앱이 있다면 알려주셔서 더욱 즐겁고 유익한 미디어생활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의 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거나 들을 수 있는 앱입니다. 지금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새번역은 개역개정과는 다르게 여러앱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블<Bible> 앱이 있으며[여기에는 표준 새번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성경과 찬송가, 갓피플성경, 다번역성경찬송 등 다양한 앱들이 있습니다. 각 앱별 글자크기나 찾는 방법, 말씀을 불러오는지 등의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맞는 앱을 찾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앱은 포켓스워드<pocketSword>라는 앱입니다. 각 성경이 txt 파일로 되어있으며 이 파일들을 불러와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며 주석과 그림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간편한 방법으로는 대한성서공회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성경본문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온라인 접속 환경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음성으로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베이직 교회에서 새번역성경 음성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온라인으로 들어도 좋지만 다운받아 음악재생기로 재생을 하면 데이터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각 인물별로 다양한 성우가 녹음한 개역개정 음성파일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성경읽기라는 앱도 있어 좀 더 흥미롭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성경지식이

아쉬운 분들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연구성경이라는 앱을 구입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성서일기를 기록하거나 문서를 남길 때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앱은 굿노트<goodNote>와 노트빌리티<notability>가 있습니다. 최근 두 앱 모두 발열과 배터리 과사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콜라노트<collaNote>라는 필기앱이 나왔는데 무료로 굿노트와 노트빌리티의 장점을 다 활용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이러한 필기앱에 공동체를 통해 배포되는 pdf파일을 집어넣어 성서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진노트<MarginNote 3>는 문서를 읽다가 중요한 내용을 표시하면 자동으로 마인드맵을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BibleMap이라는 앱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며 사진자료와 읽을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단점은 영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겠지만 요즘 뉴스는 현란한 디자인과 광고로 시선을 다른곳으로 빼앗기기 쉽습니다. 뉴스데일리<newsdaily>는 이러한 기사들을 글 중심으로 갈무리해 보여주며 다양한 신문사, 방송사의 기사들도 검색 가능합니다.

오히려 시간을 제한하여 사용해야 하는 앱들도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듯 핀터레스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당근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하나님과 그분께서 주신 일상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시간알람이나 규칙 등을 만들어 지혜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조율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튜너툴<tuner-Tool>과 코드를 알려주는 베이직코드<BasicChords>를 활용해 함께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앱 정보는 교회 자유게시판을 통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앱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더욱 좋은 앱들을 통해 유익하고 이로운 삶을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활공동체 디아코니아사랑방 권재만 목사

한주간의 말씀

“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

< 요한복음서 13장 14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445, 383, 406 / 93

기도 :

성경 : 사무엘기하 22장

제목 : 다윗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노래하다

관찰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노래로 주님이 살아 계셔서 자손에게도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증언했다.

해석 :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해야 한다.

적용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드러내자.

- 1) 하나님께로 피하자.
- 2)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을 부르짖어 찾자
- 3)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자.
- 4)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 5) 어려움 중에 건져 내시는 분으로 의지하자.
- 6) 교만함보다는 불쌍한 백성이 낫다.
- 7)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삶을 살자.
- 8) 훈련을 통하여 발전하자.
- 9)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자.
- 10)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자.

꿈꾸며 함께 걷는 길

새해를 맞이하고 보름 동안 두 모임에 참여했다.

첫 번째는 2박 3일 동안 경주에서 있었던 '기대연 컨퍼런스'였다. 전국의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이 모여 서로를 다독이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연합의 장이다. 3년 만에 직접 만나는 자리여서인지 400여 명의 많은 인원이 모였다. '이 땅 위에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주제 아래 여러 강의를 듣고 밥을 먹고 공연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엘리베이터에서나 식사하려고 줄을 서 있을 때나 마주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육을 위해 수고하는 소중한 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젊은 교사들이 제법 많이 보이는 것도 기뻐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것은 신국원 교수님의 기독교 세계관 강의였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내용을 듣고 그 족보에 사랑방공동체와 내가 이어져 있다는 것에 마음이 웅장해졌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은 고달프지만 반드시 도달할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끝까지 걸어가야지 다짐해보았다.

두 번째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공동체 식구들과 함께했던 '영성 수련'이었다. 오전 10시에 모여 찬양을 드리고 성서일기 진도에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다. 점심 식사를 한 후 오후에는 공동생활(공동생산, 공동분배, 공동모임, 공동휴식, 공동식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좋았다! 특히 찬양시간과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이 정말 좋았다!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이분들 참 훌륭하구나. 보석 같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형제자매가 어울려 사는 삶, 영생의 삶을 누린 한 주간이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멈추고 있는 사랑방성서모임이 새로 시작되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먹고 삶을 나누기를 바란다.

올해도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가고 싶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요한복음 13 : 4-5, 12-17
87, 335

“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 ” 권재만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218

주님의 사랑이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권재만 목사

마태복음 3 : 16-17 인도자
29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시편 103 : 3-5 인도자
79, 286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전선희 김화인/ 봉헌위원 : 이명호/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기 원합니다.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잡시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 중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려 주려고 왔다.” 말씀하셨습니다.<마20:28>

인간이 되신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축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하셨고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함을 가르치시고 보이셨으며 십자가에서 그 모습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서로 낮은 자리로 갑시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양한 식탁에서 자신의 시간과 존재를 내어주셨고 그 식탁에 참여한 자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더 낮은 곳으로, 끝자리로 갑시다.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이승호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어린이학교 >

새로운 만남의 축복

우리가 살면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말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만, 사실상 현실 사회에서 새로운 만남이란, 축복이기보다는 새로운 긴장관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그룹에 있든 다른 그룹에 있든 서로 비교 대상이거나 경쟁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만남의 자리에서, 겉으로는 웃음과 친절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경계의 날을 숨기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어려운 것도 이러한 이유겠지요. 비교와 경쟁이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일지는 몰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소외나 배제가 있다면 마땅히 돌아봐야 하거늘, 적당히 눈감고 경쟁 사회에 순응하며 사는 게 우리네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현실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저 또한 속물적인 습성을 떨쳐 내기 쉽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의 등급을 나누듯,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의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를 구분하려 하고,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그 아이의 성적과 집안 배경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하린이를 어린이학교에 보낸지 어언 6년, 벌써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어린이학교 학부모로서의 역할은 모두 아내에게 맡긴 채, 생존경쟁의 피곤함을 핑계로 방관하며 지내 왔더랬는데, 다행히 마지막 학기에, 도보여행, 두 번의 식사당번, 종강발표회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 아주 짧게나마 아이들과 만나 부대끼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항상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먹는 거 앞에서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장난이 선을 넘기도 하고, 괜한 고집으로 어른들을 난감하게 할 때도 있지만 이런 모습조차도 오히려 귀엽게 보였으니, 정말로 아이들에게 흠뻑 빠져있나 봅니다. 뒤늦게 나타난 낯선 저를 거부감 없이 대해 주는 다정함, 깜짝 놀랄 기발함, 동생들을 챙기는 따뜻함 등 많은 것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저를 몽글하게 만든 것은, 최선을 다해 매 순간을 만끽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침없이 달려가 부딪치고, 먹고 뒤돌아 또 먹고, 사소한 것 가지고도 쉴 새 없이 떠들어대고, 하찮은 이유로 하늘을 다 받아 안을 듯 고개 젓혀 까르르 웃는 모습이 너무나 예뻐습니다. 심지어 감동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매 순간을 만끽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경쟁의 긴장감에 지친 저를 달래준 위로인 동시에 비루한 일상에 허우적대는 저를 향한 충고 같았습니다. "아저씨 왜 그렇게 살아요? 뭘 그리 걱정하세요? 우린 지금 너무 좋은데, 너무 재밌는데.." 라고 말이죠. 모든 것을 만끽하고 있는 순간, 이들은 불확실한 미래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주변의 눈치를 봐야 하고, 조건을 따져봐야 하고, 인과를 분석해야 하는 고상한 어른들은 절대 만끽할 수 없는, 경쟁에 익숙한 어른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먼저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만 하고 있는 어른들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경지에서 말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관심사와 취향은 궁금했으나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나 집안 배경이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님을 한 분 한 분 알게 될 때마다 그저 기쁘고 반가울 뿐, 더 이상 그분들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전혀 궁금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쟁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만나서 반가운 사람,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마냥 웃음 지어지는 사람들과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친구를 만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고, 새로운 만남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워낙 짧아, 아이들이 저의 고양된 감정을 조금 뜬금없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저를 기억 못 할 친구도 있겠지요. 그래도 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천국은 바로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이라는 비밀을 알려줬으니까요.

어린이학교 6학년 장하린 아빠 장모세

오늘을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올해부터는 만으로 나이를 계산한다니 우리 모두는 작년과 같은 나이니까 일 년을 공짜로 선물 받은 건가요? 나이를 계산하는 거 보니 이제 저 어르신 된 거 맞습니다.

몇 년 전에 서점에 가서 제목에 끌려 '아이들의 이름은 오늘입니다'란 책을 구입해 보니 책을 쓰신 분도 잘 아는 분이요 내용도 저와 비슷한 교육관을 가지신 분이요 단숨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의 삶 속에서 많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단어가 그 '오늘'이란 단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고맙습니다로 시작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이 내게 '오늘'이 있기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당연한 것 같았던 '오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책임과 소중한 마음들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자연 예배당에서 생활공동체 영성 수련이 있었습니다. 그 전 주간에 전 교사가 경주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걱정을 했는데 교사 포함 전원이 다 참석하여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전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나누고 오후에는 그동안 고팠던 삶에 대한 서로의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동안 몸은 좀 피곤했지만 서로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각 사랑방의 방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먼저 시작하셨다고 하시면서 다른 방모임도 시작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은 코로나로 자유하지 못하지만 사랑방 가족 모두 함께 모여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벌써 1월이 반이 지나가네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오늘'은 계속 찾아오겠지요. 전 올 '오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많이 대접하고 대접받으며 지내고 싶습니다.

계묘년 올해 사랑방 가족 모두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 믿음까지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생활공동체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월영 사모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최기찬 전도사

찬 송 : 338장 546장

성 경 : 시편 18:1-6

말 씬 : 힘이 되신 하나님

중보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지난 5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정교회의 성탄 이브인 6일 낮 12시부터 성탄절인 7일밤 12시 까지 자국 군인에게 휴전을 명령했다. 그러나 정교회 성탄절 기간에도 우크라이나에 포격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한국의 공동체들을 위해>
 - 1) 2023년 각 공동체가 주어진 사명을 따라 잘 따르도록
 - 2)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다윗의 노래처럼 각 공동체가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한 해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 2) 생활공동체 영성훈련 기간을 위해서
 - 3) 추운 날씨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 생활공동체 소식 >

생활공동체 영성수련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공동생활 식구들은 자연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서 읽기 쓰고 나누고 얼마나 고팠던 시간이었는지 영성 수련에 참여해보니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고 그것을 늘 기억하는 것인데 이번 기간을 통해 더욱 우리가 한 몸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새워갈 수 있는 아주 귀하고 값진 시간이었고 이 시간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첫날도 주일이고 설날도 주일인 것을 보니 이번 해에는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 장영미 전도사 >